

# “광주 물류노동, 저임금·열악한 작업환경 고착”

## 광주노동센터, 광주물류센터 노동환경 보고서

### 평균연봉 3342만원...일용직 등 비정규직 75.7% 66% 신체적 부담·화장실 이용 ‘눈치’...개선 시급

광주지역 물류센터 노동환경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 고착화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광주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광주지역 물류센터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 물류산업(창고·운송 관련)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3342만5743원

(202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4700만 8040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광주지역 물류센터 노동자 5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는 1960~2010년 물류창고가 누적 11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102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인프라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낮게 유지되며,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 형태도 불안정했다. 응답자의 75.7% (429명)가 일용직이나 계약직이었고, 상용직은 15% (85명)에 그쳤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9.3% (53명)였다. 근무 기간 역시 6개월 이하가 38.8% (220명)로, 단기 고용과 높은 이직률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강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약간 힘들다’는 응답이 46.2%였으며, ‘상당히 힘들다’ 16.8%, ‘극히 힘들다’ 3.2%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신체적 부담을 호소했다.

작업 환경의 제약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48.1%는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28.9%는 ‘보통’이라고 응답해 언제든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줬다.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작업량이 많아 눈치가 보여서’가 43.4%로 가장 많았고, ‘작업 속도가 빨라 짬을 내기 어려워’ (28.6%), ‘관리자 보고 필요’ (25%), ‘작업 중단이 확인돼서’ (15.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노동자가 심리적·구조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 내 괴롭힘도 적지 않았다. 고함 (36.5%)과 폭언·욕설 (19%)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따돌림 (9.3%), 성희롱·성추행 (4.2%), 폭행 (3.9%) 등이 뒤를 이

었다.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고, 상사 보고 (29.8%), 지인 상담 (27.7%) 순으로 나타나 문제 제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도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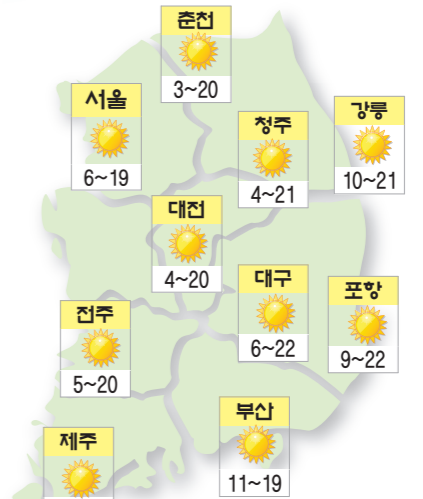
전문가는 어느 하나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광주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물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단편적 개선을 넘어 고용 구조와 작업 방식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맑음 05:54 달맞이 08:21  
☁️ 맑음 19:10 달맞이 23:56



광주	☀️	5~21
목포	☀️	6~18
여수	☀️	7~17
순천	☀️	7~22
구례	☀️	6~21
광주	☀️	5~20
신도	☀️	5~21
흑산도	☀️	9~14
진남	☀️	6~20
진도	☀️	8~17

목포	미물(고)	04:57 / 16:52
	쌀물(저)	09:59 / 22:01
여수	미물(고)	11:28 / --:--
	쌀물(저)	05:27 / 17:32

## 전남미래국제고, 2개반 16명으로 수업 정상화

전남도교육청은 20일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카자흐스탄 국적 유학생 4명이 입학해 전남 미래국제고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미래국제고 입학 예정 청소년 유학생 45명 중 4명으로, 카자흐스탄 거주 동포 가족으로 인정받아 뒤늦게 비자가 승인됐다.

학교 측은 이미 수업받고 있는 국내 이주배경 학생 7명, 위탁 과정으로 입학한 다문화가정 학생 4명, 중도 전학생인 러시아 출신 학생 1명 등 총 16명으로 2개반을 꾸려 학사 운영에 나섰다.

전남 강진에 위치한 미래국제고는 외국

인 청소년 유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유치해 직업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다.

지난달 초 개교해 입학 예정 인원 52명 중 45명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려 했으나 법무부가 이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최근 외국인 비자 심사가 강화된 데다 교육이 아닌 정주·취업 목적 청소년 유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다시 비자를 신청하기로 했다.

joinus@gwangnam.co.kr



함평나비대축제 성공을 위한 나비 날리기.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둔 20일 오전 전남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 축제 성공 기원을 위한 나비날리기 행사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비를 날리고 있다.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동강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

### 23일 본관 나이팅게일홀

“7만여명의 전문 직업을 배출한 빛나는 반세기, 이제는 미래 인재 ‘슈퍼 테크니션(Super Technician)’을 키운다”

동강대학교가 23일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를 기념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다.

동강대는 이날 오후 2시 본관 5층 나이팅게일홀에서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1976년 4월23일 동산실업전문학교로 출발을 내디딘 동강대는 그동안 ‘백년지대계’의 교육 목표와 지역 사회의 책무를 다하며 성장해왔다.

동강대는 지난 50년간 7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길러냈다.

동강대는 이번 개교 50주년을 계기로 미래 100년을 향한 대도약의 비전을 선포한다.

이민숙 총장은 기념식에서 ‘Do it

great for Super Technician’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상으로 고숙련 기술인 ‘슈퍼 테크니션’ 양성의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동강대는 이번 50주년 기념식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복원한 설립자 동강 이상우 박사의 축하 영상을 상영하며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설립자는 영상에서 개교 50주년을 맞은 학교 구성원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영상은 동강 50년사를 담은 책에서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날 기념식에는 1995년 동강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 남태평양기술대학교 총장단이 방문해 개교 50주년을 축하하고 30년 우정을 과시한다.

기념식에서 앞서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동강대와 대만 남태평양대가 공동 학술대회를 열어 미래 교육과 연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joinus@gwangnam.co.kr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비 자치법규 정비”

### 7월1일 출범 맞춰 필수 법규 우선 시행 후 단계적 추진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40년 만의 교육행정 통합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를 착수했다. 오는 7월1일 통합교육청 출범에 맞춰 필수 법규를 우선 정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이원화된 자치법규로 인한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정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청의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를 확보하고,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은 361건, 광주시교육청은 318건의 자치법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1차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비는 ‘필수 → 안정화 → 일원화 → 정비 완료’의 단계적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전에는 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집행 등 핵심 법규를 우선 정비하고, 출범 이후에는 지역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4월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와 입법안 확정을 거쳐 7월1일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자치법규를 공포·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양 교육청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법규

외에도 추가 통합 대상 발굴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일괄 수행해 각 부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입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조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교육자치 조직권 조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도 함께 제정할 계획이다.

이선국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새로운 교육자치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oinus@gwangnam.co.kr

## 출소 2달 만에 절도범 실형

마넨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두 달 만에 11차례 도둑질을 한 50대에 게 실형이 내려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야간건조물점입절도, 야간건조물점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점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12시15분 광주 북구 한 상점에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150만원을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23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

또 경기도 안양, 김포, 시흥, 광주 등으로 이통에 인근 교회 예배당 의자에서 놓여진 지갑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두 달 만에 11차례나 재범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 임영진 기자

## 여수서 재생에너지 전환 논의 영산강유역환경청, 내일 포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함께 22일 여수시 유담마리나호텔에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국제주간’ 광주·전남권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전남도, 에너지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분야별 전문가 발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제기되는 전력망 문제와 지역 수용성, 주민 참여형 수익모델을 함께 논의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권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정부 정책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 도 지자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AI로 ‘암 환자 맞춤 치료’ 시대 앞당긴다

전남대학교 연구진과 교원창업 기업이 협력해, 암 환자별 약물 반응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환자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사전에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맞춤형 암 치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공과대학 유선용 교수 연구팀과 교원창업 기업 ㈜마틸로에이아이(대표 유선용)는 ‘암물 유도 전사 반응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전남대 공과대학 지능전



유선용 교수

자컴퓨터공학과 김재원 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연구 성과는 SCI 국제학술지 Bioinformatics (Impact Factor 5.4, JCR 상위 8.7%)에 게재 승인됐다. 연구는 특정 약물이 세포에 작용할 때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 변화를 AI로 예

측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팀은 변분 오토인코더(VAE)와 확산 모델(Diffusion Model)을 결합한 ‘잠재 확산 모델(Latent Diffusion Model)’ 기반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기술은 세포주, 약물 구조, 처리 농도, 처리 시간 등 다양한 조건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기존에 판독되지 않은 약물-세포 조합에서도 안정적인 예측 성능을 보였다.

성능은 기존 최고 수준(SOTA) 대비 피어슨 상관계수 기준 약 7% 향상됐고, 연산 비용은 300배 이상 절감됐다. 또한 생성된 유전자 발현 데이터가 실제 생물

학적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점도 실험적으로 확인됐다.

약물 유도 전사 반응 예측 기술은 모든 약물-세포 조합을 실험하기 어려운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상 스크리닝과 약물 재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는 환자별, 세포 유형별 약물 반응 차이를 예측할 수 있어 정밀의료 구현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선용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전체 데이터와 생성형 AI를 결합해 약물 반응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성과”라며 “현재 추진 중인

‘K-HOPE: 한국인 암 특화 디지털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과제와 연계해, 한국인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 교수는 바이오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통합 지능형 플랫폼 기업 ㈜마틸로에이아이에 창업해 연구 성과의 산업화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 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보건 의료 기술 연구 개발 사업(RS-2025-19252970)을 통해 수행됐다.

joinus@gwangnam.co.kr